

**Artist
Statement**

삶은 잦은 이주와 변화의 연속이었다.

낮선 환경에 던져질 때마다 나는 익숙한 고리가 끊어지는 파편화를 경험했고, 기존의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이 희석된 모호한 경계에 서야 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실은 '아는 대로' 볼 뿐이다. 나의 작업은 그 익숙한 삶과 비로소 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만남' 사이의 간극에서 출발한다.

나의 그림 위에서 이 풍경들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변모한다.

분명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산의 형상이지만, 낮선 곳에서 마주한 탓에 현실의 질서가 지워진 모호한 장소이자 극복해야 할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처럼 친숙함과 이질감이 공존하는 공간 속에 나체로, 혹은 무언가 뒤에 숨은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이 인물들은 마치 에덴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아담의 시선'과 닮아 있다. 숨기거나 엿보는 이 행위는 두려움인 동시에, 저 벽을 넘으면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은 판타지(fantasy)를 향한 호기심이다.

나는 흩어진 삶의 파편을 모아 화면 위에 다시 집요하게 쌓아 올린다. 화선지 위에 베이스(basis)을 먹이고 유화를 얹으며 이질적인 재료를 결합하듯,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을 혼합해 나만의 심리적 지형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그림 속의 산을 오르고 벽을 마주하는 행위는 거대한 힘에 대한 순응이 아니다. 그것은 익숙하고도 낯선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음'을 각인 시키려는 저항이자, 나의 가장 솔직한 삶의 방식이다.

이상열 작가노트